

# 2주 남은 수능...기출 문제·EBS 연계 교재로 마무리 학습을

### '킬러문항' 배제 방침은 금물...적정 난이도 문항 출제 예상 "EBS 연계율 50%...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유지·건강관리"

#### 광주교육청, 수능 대비 마무리 전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6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어떤 학습 전략을 펴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은 '킬러문항'이 배제되지만 변별력을 확보하는 적정 난이도 문항의 출제에 예상되기 때문에 방침은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공개한 수능 대비 2주전 마

무리 학습 전략에서 "최근 수능 기출 문제를 최종 점검하고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마무리 학습을 해야한다"면서 "올해 수능은 EBS 연계 교재 학습이 중요해진 만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수능에서도 EBS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로 전년 수능과 같다. 시교육청은 무엇보다 수능이 임박했기 때문에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학습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실전 감각을 유지하되 제한된 시간에 자신

만의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영역별 학습 전략도 소개했다. 국어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 체감 연계율을 높이는 문항이 출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복잡한 선택지를 배치해 평이하게 정답이 도출되지 않은 문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선택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독서에서 주제통합 지문과 문학에서 갈래복합 지문에 유의해야 한다. 수학은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쉽게 출제되고, 최상위권을 선별하는 변별력은 다소 평이하지만 중상위권 변별력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계산에 시간이 필요한 문항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문제풀이 시간 분배가 시험의 성패를 좌우할 것

으로 점쳐진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미적분'은 어려운 계산보다는 정의·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관건이다. 영어는 한 문장의 길이가 긴 지문들을 활용해 독해 난이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장 삽입 문항에서 매력도 높은 오답 선택지를 배치하는 출제 경향을 감안,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장을 의역해야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탐구 과목에서는 중요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한 문항 출제에 대비해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사회탐구는 '보기'에 있는 보

충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고, 과학탐구는 과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산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박철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장은 "수험생이 평소 실력을 발휘하려면 체력관리와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쉬는 시간에 적당한 운동, 산책, 명상 등을 통해 안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수능 시험 지원자는 1만6089명으로, 재학생은 1만1112명, 졸업생은 4332명이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645명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수능에서 일반시험장 38교, 예비시험장 1교를 운영한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운영했던 별도 시험장은 이번에는 운영하지 않고 확진 수험생도 일반 시험장과 같은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황금빛 터널 아래서 31일 순천시 주암면 선암사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에서 가족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서도 미분양 파격 혜택...입주자-시공사 '갈등'

### 기존 입주자 "수 천만원 이자 물고 있는데 신규 입주자 무이자 차별"

아파트 시공사에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신규 입주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혜택을 주기로 해 기존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광양에서 미분양으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10월 25일자 광주일보 6면)이 불거지는데 이어 광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는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시공사 측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에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지문이 올라왔다. 125㎡(38평) 이상 신규 입주 세대에게는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3·4회차 무이자 및 mgm 수수료 2000만원 등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mgm 수수료는 분양대행사가 지역 중개사들을 이용해 손님을 데려오는 대가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신

규 입주자 또한 중개사와 협의의 통해 수수료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입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공사가 입주자들과 논의조차 않고 혜택을 주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없어 수천만원 이자를 부담하는 기존 입주자를 차별한다는 게 골자다. 84㎡ 계약자중 한 명은 "중도금 무이자, mgm 수수료 등을 이용해 시공사가 꼼수로 할인분양을 하려고 있다"며 "나머지 세대들에게 아파트 미분양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혜택 부여 시점에 문제삼고 있다. 중도금 대출서류 접수일은 9월 21~23일, 인터넷 대출 접수 기간은 10월 12~15일 이었는데, 대출을 접수하고 난 뒤 10월 25일께 신규 입주자 혜택을 늘린다는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민들 사

이에서는 기존 입주민들이 계약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시점을 노려 할인분양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자들은 "시공사 측에서는 입주자들에게 현재 분양률이 80%가 넘는다고 호언장담하는데, 정작 하는 행동은 당장 분양률을 높이는 데 급급한 모양새"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또다른 입주자들은 "할인을 해서라도 100% 분양이 완료돼야 기존 입주자들도 원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는 등 입주자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공사 측은 "84㎡ 세대가 가장 수가 많고 남은 세대가 별로 없어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아파트도 모두 똑같으며, 빨리 분양되는 계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시 재난 문자, 시민 피로감 개선한다

### 10일부터 재난 정보·대피 행동요령 담은 문자 발송

광주시가 재난 위험을 알리는 내용만을 반복 전송해 시민 피로감을 가중해온 재난문자 알림을 개선한다. 오는 10일부터 재난정보와 대피행동 요령 등을 담은 구체적인 재난문자를 보내기로 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는 10월까지 총 155건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579건, 2021년 1211건, 2022년 521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올해 7-9월에 호우피해 등의 우려로 재난문자가 집중돼 시민들의 피로감은 오히려 더 높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자치구가 중복된 내용으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탓에 시민들이 수차례 중복되는 내용의 문자를 받는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피로감을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90자 내외 제한 때문에 구

체적인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광주시는 재난문자 송출 체계 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달 24일 서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따라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난문자 정보 구체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광주시 재난안전 문자에는 필요시 재난정보와 행동요령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시 홈페이지 링크(단축 URL)를 포함해 송출한다. 또 사전에 재난문자 표준문안을 취합하고 배포해 재난시 빠르고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행안부와 광주시, 자치구가 동시에 보내 중복되는 재난문자와 글자수 90자로 한정된 분량 문제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박지영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공식 취임



박지영(사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일 공식 취임했다. 박 신임 부교육감은 이화여자대학교교육과를 졸업하고 아주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방과후돌봄

정책과장, 교육기회보장과장,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기획조정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 사건지원단장 등을 역임했다. 박 부교육감은 "광주교육청의 주요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을 귀담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 교육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